

보도시점 2026.7.27.(월) 11:00
< 7.28.(화) 조간 >

배포 2026. 7. 27.(월)

산업부, 정유·해운업계와 중동상황 대비, 원유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 중동 해상 운송리스크 확대에 따른 비상수송 및 도입계획 점검
- 비상시 비축유 스와프 재가동 준비, 대체항로·물량 확보에 총력 대응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및 홍해 통항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여, 7월 27일(월)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정유업계 및 해운업계와 함께 ‘원유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원유 수출 터미널인 홍해 안부항을 포함한 주요 해상 수송로의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 국내 원유 도입선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비상 수급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국내 도입원유는 7~8월 전년 대비 100%를 초과하여 확보하였고, 9월 도입분 역시 90% 이상 차질없이 확보하고 있는 단계로 당장의 수급 우려는 낮은 상황이다. 다만, 사우디 안부항을 통한 유조선이 홍해 통항시 위험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원유 공급망의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와 정유·해운업계는 실시간 상황 공유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수에즈 운하, 수메드 파이프 등을 통한 우회 수송로 협의, 비중동산 대체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원유 스와프 제도도 유사시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유 수급 위기경보 체계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시 상황 조정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 양기욱 실장은 “위기상황 발생시, 비축유 스와프 제도 즉시 시행 등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임을 밝히고, “중동상황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생활과 우리 경제에 차질이 없도록 정유업계와 해운업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4-203-5220)
		담당자	사무관	김민성 (044-203-5223)
			주무관	정근화 (044-203-5219)